

사설

‘성도절’ 더 크게 기려야

성도절은 석가모니께서 대각을 이루어 부처님이 되신 날이다.

‘부처님 오신 날’은 불교의 근본취지에 입각해 본다면 ‘부처님 오신 날’보다 훨씬 더 의미가 깊은 날이다. 사람의 몸을 받고 태어나는 일과 부처가 되는 일의 어려움을 비교해 보면 쉽게 짐작이 갈 것이다. 만일 석가모니께서 대각을 성취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오늘날 어찌 그 위없는 지혜와 대자대비를 한 조각이나마 느낄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부처님 오신 날’의 그늘에 가려 이날이 불교 교단 내에서조차 본래의 의미와 위상을 찾지 못하고 있으니 자못 안타까운 일이다. 앞으로 이 날을 기리는 알찬 행사들이 보다 많이 치러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바라는 바는 스님들과 불자들이

이 이 날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 각성의 계기로 삼아야겠다. 석가모니를 닮아 마침내 부처가 되려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그 곁어오신 과정을 역행하며 부처님을 욕되게 하는 작태가 비일비재 속출하는 요즘, 자기를 바로 일으켜 세우고 사회를 정화하는 노력이야말로 부처님을 따르는 불자로서의 뜻있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또한 사회일반에서는 물질주의의 범람 속에 독선과 적대감이 판을 치는 오늘날을 직시하고 인류의 미래를 위해 불교의 메시지를 적극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연기와 인과로 대변되는 불교의 상생과 양심의 원리야말로 이 시대를 바로잡아 나갈 목탁이며 나침반이기 때문이다. 이번 부처님 성도절은 불자는 물론 지구촌 인류 모두가 각성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수행총본산 본분사 매진 계기로

불교계를 대표하는 6개 종단들이 수행풍토를 일신하고, 행정과 수행 공간을 분리하여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수행총본산 건립 계획을 연달아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들은 수행과 문화의 전문 영역을 확보하여 각 종단의 정체성에 알맞은 종교문화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변화가 극심하여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시대조류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움직임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자 한다.

그러나 이같은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 역시 적지 않음을 각 종단의 책임자들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결국 어떤 형태로든 신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각 종단의 계획이

효용하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대형불사가 자칫 종단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한 외형적 불사로 치우칠 수도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현대 한국불교계의 현실 내지 한국종교계의 보이지 않는 경쟁 속에서 이러한 계획만이 최선의 선택이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건물이 없어서 한국불교계의 수행문화가 진작되지 못했다고 말할 것인가? 현대 산업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결국 인간이란 점은 고려했는가? 사회구조의 심층단면을 이해하지 못하고도 이 땅에 불교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가? 내실 다지기, 인재 양성, 현대적인 포교방법 개발 등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빈약한 한국불교계의 인적 자원을 해결하는 것이 한국불교계의 미래를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말사 중심 지역포교 강화

조계종 포교원 4일 2003년 포교전진대회...기조 발표

템플 스테이·주말 수련회 시행사찰 확대

인터넷기반 확충...신행종합 정보망 구축

조계종 포교원은 올해를 ‘지역 포교 활성화의 해’로 정하고 교구 본·말사를 중심으로 한 포교활동을 활성화하고 신도 수련 및 조직 강화에 나선다. (관련기사 8면)

조계종 포교원은 4-5일 열린 2003년 포교전진대회에서 포교기조와 분야별 목표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94년 포교원 독립 이후 집중된 포교역량이 이제는 지역의 교구본사를 거점으로 단위 사찰에 주어져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지역포교 활성화를 큰 목표로 잡게 됐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조계종 포교원은 분야별 목표로 △본·말사 포교행정체계 구

축 및 신도회 활동 강화 △신도 교육체계 확립 △수련·신행 프로그램 개발 및 신행종합정보망 구축 △군·경포교 활성화 △청소년포교 활성화 △국제포교 안정적 기반 확충 등을 제시했다. 분야별 목표에 대한 실천 과제도 선정,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이에 따라 조계종 포교원은 포교원-교구본사-말사를 연결하는 포교행정 체계를 통일화하는 한편, 수도권 포교연구위원회를

구성해 수도권지역의 포교 방향을 설정할 방침이다. 신도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혜택 확대 등을 통해 신도교육체계 정착에도 나선다.

또 지난해 실시된 템플 스테이와 주말 수련회 등 사찰체험 프로그램을 보다 많은 사찰로 확대, 정착시키고 사찰별 특성화 수련 프로그램 개발, 인터넷 포교기반 확충 등을 추진함으로써 수련·신행 종합정보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군·경 포교분야에서도 군법당 및 군신도 등록 확대와 군불교위원회 관리체계 확립, 경승단 지원 관리 활성화, 전·의경포교 기반 구축 등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 아울러 계층포교의 중간고리 역할인 청소년포교 활성화를 위해 파라미타청소년협회의 조직체계를 대폭 정비하고 청소년 포교인재 양성과 조직화를 이뤄나갈 예정이다.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스님은 “교구본사와 지역사찰이 포교활동의 주체가 되고 포교원은 이를 지원하는 포교정책과 방향을 잡는 포교체계를 세워, 장기적으로 포교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갈 방침”이라며 “지역포교 활성화를 위해 포교관련 단체와 사찰이 힘을 모아 나가자”고 당부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nia.com

그린벨트내 납골시설 쉬워진다

정부 철거·이장 분묘 등 입지제한 없이 허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납골시설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올 상반기부터는 해당 지역 내 사찰들의 납골시설 설치에 간편해진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존 분묘 또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이장되는 분묘의 정비를 위한 경우, 입지제한 없이 납골시설 설치를 허가한다”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리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사찰 경내지, 공동묘지, 화장장

이외의 지역에서도 납골시설 조성 가능하게 됐다.

이번 개발제한구역 내 납골시설의 설치 기준 완화는 화장 문화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각종 규제에 묶여 납골탑과 납골당 등의 시설들이 사찰 경내지 내에만 설치 가능했던 것에 비해, 개발제한 구역 내 사찰 토지에도 이들 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2002년 현재 총 32곳에 달하는 불교계 납골시설들이 양적·질적으로 확대되

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유정석 자문위원은 “납골시설 설립에 관한 각종 행정규제를 푸는 것도 시급히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29일 “단독주택 지역 안의 종교집회장에 사설 납골당을 세울 수 있도록 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6조 2항을 개정하라”는 의견서를 발표했다. 이는 화장문화를 장려하는 정부정책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강유신 기자

승려자격을 박탈하는 멸빈의 징계를 받았더라도 사설사암의 주지 추천권은 보장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30민사부는 안양시 소재 용화사의 전 주지 상덕스님이 현 주지 덕문스님

며, 따라서 설립자의 추천을 받지 않은 채 주지로 임명된 것은 무효”라는 요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상덕스님은 1975년 용화사를 인수해 1999년까지 대웅전 등을 신축하고 조계종 소속 사찰

“멸빈 징계 받은 스님이라도 사설사암 주지추천권 보장돼야”

서울고법, 용화사 전주지 상덕스님 승소판결

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가 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해 12월 말 “사설사암의 종단등록이 의무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재산을 출연해 그 사설사암을 설립한 자의 자격은 종단등록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

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으나, 99년 종단분규 과정에서 정회개회회의 측에 가담한 뒤 총무원 측으로부터 멸빈을 당하고 덕문스님이 용화사 주지로 임명되는 등 사찰에 대한 권리도 상실했다. 한명우 기자

연등축제 ‘동대문운동장시대’ 막내려

청계천 복원사업 따라 주차공간으로 활용

서울시, 조계종에 통보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의 ‘동대문운동장 시대’가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사업(2003~2005년)에 따른 주차난 해결을 위해 동대문운동장 축구장을 복원 기간 중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복원 이후에는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동대문운동장 관리사무소측은 지난 해 12월

16일 조계종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연등축제는 지난 96년부터 동대문운동장에서 무대행사를 가진 뒤 종로를 따라 조계사까지 행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불족위원회 박상희 간사는 “몇 년 전부터 부분적으로 해 온 것처럼 조계사 앞 도로를 이용한 거리축제 형태로 형식을 바꾸거나 대체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신도교양지 격월간 발행

조계종 중앙신도회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백창기)는 신도임원들에게 통일된 활동 지침과 소식 전달을 위해 계획 중인 신도교양지 준비호를 지난해 12월 26일자로 발행했다. 2천여명의 신도회 임원들에게 발송되는 신도교양지는 이달부터 격월간으로 발행된다. 박봉영 기자

본사사령

박재완
총 편집국 사진기자
2003년 1월 2일

‘현대’ 만평

김영민



총본산 중심으로 불교발전을...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nia.com
인쇄인 : 김규석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